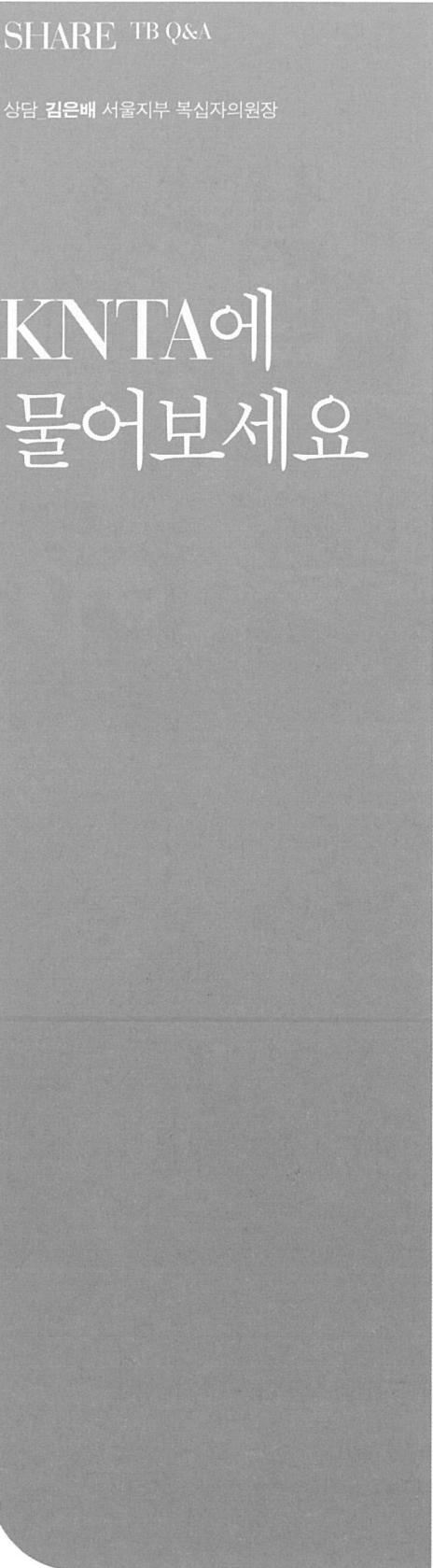


상담 김은배 서울지부 복식자의원장

KNTA에 물어보세요



question

01

미국에 온 지 만 3년째 되는 가족입니다. 2년 전 엄마가 결핵(관절)진단 받고 1년 2개월 약 복용 후 호전되었는데, 7세 딸아이가 약 2년 정도 가래 끓는 기침을 자주 해서 그 동안 주변 소아과에서 알러지 약을 처방해 먹였습니다. 기침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잘 먹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도 마른 체형으로 변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몇 주 전에 투베르쿨린 반응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왔고, X-Ray 검사에선 깨끗하다고 합니다. 약 처방 후 1주일 정도 후에 담당 소아과 의사(미국)가 피검사를 권해서 그것도 했습니다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CG 접종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대부분의 경우 양성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뛰박질도 잘하고 튼튼했던 아이가 너무 약해져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결핵과 관계없는 걸까요?

아이가 결핵 반응검사 상 양성이고 흉부 X-선 소견 상 정상이었으므로 폐결핵이 아닌 잠복결핵 감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잠복결핵이라 하더라도 잠복결핵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호흡기 증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질환 가능성성이 있으므로 큰 병원의 소아과에 가셔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02

아기 아빠가 두 달 전 다제내성 결핵을 판정받고 현재 음암 시설이 되어있는 3차 병원에서 격리 중입니다. 7개월 된 아기가 걱정되어 결핵검사를 받았는데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피부반응 검사에서 15mm 양성반응이 나와서 아이나를 한 달간 복용하였습니다. BCG를 접종했는데도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더구나 이렇게 어린(7개월) 아기가 결핵에 걸린 사례도 있나요?

비시지의 결핵 예방효과가 좋지만 완벽하게 예방은 못 하므로 접종했더라도 결핵에 걸릴 수 있고, 실제로 소아 결핵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아이들이 잠복결핵 감염으로 확인되면 예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아이의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할 약제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권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결핵 발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제내성 환자와의 접촉자는 치료와 상관없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결핵 검사를 받아서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03

소아 결핵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4제 요법 HREZ를 6개 월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아는 안구 독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에탐부톨을 투약하면 안되는 게 아닌지 궁금

합니다. 4제 요법이 가능한 건가요?

과거에는 소아의 경우 시신경 부작용 때문에 에탄부톨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최근 통상적인 용량으로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안과적인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서 요즘은 소아에게도 투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신경염이나 적록색구분 장애 등이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과 검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아 호흡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04

안녕하세요. 폐결핵 치료 중입니다. 결핵약을 복용한지 3~4개월 됐는데 흡연을 했습니다. 3개월 흡연을 하다 보니 기침을 합니다. 담배를 끊을 생

각인데 기침을 좀 하는 게 마음이 걸리네요. 혹시 흡연으로 인해 폐결핵 완치가 안 될 수 있나요?

결핵약을 매일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고 있으면 다소 흡연을 하더라도 흡연 자체 때문에 완치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흡연을 하게 되면 폐와 기관지 등에 염증을 일으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핵치료 뿐만 아니라 결핵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폐와 기관지 보호 및 후유증 감소를 위해서도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05

어린이집에 다니던 집사람이 7월 결핵성늑막염 및 폐결핵 진단받고,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현재 3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병원에 처음 갔을 때의 객담검사 및 두 달 걸린다던 객담배양검사에서도 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의사 확인증만 있으면 일하는 데 문제없다고 합니다. 확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 확인증'이라는 것은 아마도 문의자께서 "현재 결핵 치료를 잘 받고 있고 객담 결핵균 검사 상 계속 음성으로 나와서 전염성이 소실되어 있으므로 현재 사회활동 등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의사에게 가셔서 현재 이러한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06

결핵약을 4개월 째 복용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치과 치료로 인해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항생제+진통제+위장약 이렇게 세 가지인데, 치과에서는 결핵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결핵약과 위의 약들을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약제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결핵약과의 복용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하셔서 처방받은 약들을 알려 주신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